

투데이 칼럼

기후변화를 활용한 소득 자원 개발

산업화와 공업화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에 폭염, 폭설, 혹한 등 이상기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유난히도 많은 폭설과 한파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수 십 년 간 많은 수준의 기후패턴 변화를 보여왔다.

열대야, 국지성 폭우, 지진, 화재 등 예측할 수 없는 기후의 변화를 가져왔고, 기후 변화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여름철에는 폭염과 폭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겨울철에는 폭설과 이상한파 등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 현상으로 더위에 지친 도시민들이 산과 계곡으로 더위를 피하기 위해 피서를



최 훈 식

장수군재무과장

가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피서지가 부족한 실정이고, 겨울철에는 폭설과 한파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는 증가하고 한파로 인한 난방비의 증가로 농가들의 소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오히려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발생한 기후 변화를 기회로 삼고 잘 활용하면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과 농가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소득원을 개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현재 필자가 살고 있는 장수는 기

상관측이 시작된 1988년 1월1일부터 열대야가 발생한 날은 1992년 1일, 1994년 3일, 1998년 1일 등 총 5일 뿐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단 하루도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해 7월 20일 전국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었는데 오직 장수군만이 예외였다.

이처럼 장수군이 폭염과 열대야로부터 벗어나 있는 원인으로서는 해발 400m가 넘는 고산(高山)지대인데다 백두대간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 때문이다.

여름철 발생하지 않은 폭염과 열대야 현상을 잘 활용하여 방화등과 외통유양림 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은 물론 일교차로 인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한우를 비롯한 삼배추 등 여름채소 연계하여 판매하면 도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겨울철에는 고랭지의 지리적인 여건과 폭설, 한파 등 기후 변화에 맞게 강원도에만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황태 덕장 등을 통해 소득원을 개발하고 설매 타기, 얼음낚시터를 통해 가족들이 추억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꼭 우리에게 책임은 아니고 지리적인 조건과 기후 변화를 잘 활용하면 또 다른 소득자원을 통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 할 것을 거라 생각한다.

독자제언

인형 뽑기방 이대로 안전하나?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인형뽑기방이 최근 들어 다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 인형뽑기방이 아니라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건 뽑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포들을 곳곳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 또는 시내 중심가를 중심으로 동네마다 무인 인형뽑기방이 많은 실정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인형뽑기방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CCTV만 설치하고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아 특별히 상주하며 관리하는 인력이 없다는 특징이 있지만, 이는 무인 인형뽑기방이 범죄 장소로 전락하기 쉬운 허점이기도 하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관리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가 우려되는 장소로 특히나 심야시간대에는 주변

에 사람들도 없어 범죄확률이 더 높아진다. 최근 뉴스에서 보면 심야시간 인형뽑기 기계를 발로 차 인형 또는 물품을 훔쳐 달아나는 경우도 있고, 인형뽑기방 안에 있는 코인노래방에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문제는 청소년의 경우 인형뽑기방에 10이후 출입할 수 없지만 보통 출입문에 출입제한 문구만 쓰여 있지 이를 통째로 인력이 없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인 인형뽑기방이 청소년들의 탈선 또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범죄 장소가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올바른고 정의로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구보빈진안경찰서 경무계 순경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독자제언

준법운전 생활화로 교통사고 예방하자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과속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이 전체 교통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경승에는 침착한 사담도 운전대만 잡으면 마음이 급해져 신호가 바뀌기 전에 급출발하고,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빨리가기 위해 속도위반을 하며, 즉음의 선이라고 일컬어지는 중앙선을 아무렇지 않게 침범한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전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인 우리나라의 도로여건이 급커브나 급경사가 심해 사고의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도 하지만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이나 마음이 침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교통안전 측면에서 볼 때 겨울철은 주행환경이 좋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계절로 꼽힌다.

최근 교통사고의 원인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고가 운전자 부주의로 파악되고 있다.

다소의 체중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만한 환경이 아닌 곳에서의 추돌사고는 운전자가 한눈을 팔거나 졸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허터를 켜둔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실내 산소소모량이 많아져 운전자가 졸음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잦은 실내 환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운전은 경험과 기술 모두 중요하지만 방심하지 않는 운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미리 사고에 대비하는 운전 습관을 길러 사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금부터는 우리 모두가 안전운전 및 준법운전의 생활화로 교통사고 없는 나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전호수진안경찰서 성수파출소 경감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탄소산업의 성장 확대는 시대의 요구

전북도가 탄소소재 적용분야의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다. 그래서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 기대가 크다. 자동차, 항공, 조선, 기계, 건설, 의료 등 범위가 넓은 까닭이다. 미래형 전기자동차와 자율 자동차는 물론이고 의료 기기 타킷 부품에도 눈길을 둔 것은 방향을 잘 잡은 거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야심차게도 항공기 왕벳 복합재 수리공정 기술개발 사업에도 참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니 해당 업계의 기대가 클터이다.

전북도가 탄소산업에 다양한 비전을 갖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속내를 말하자면 도민들은 다른 정서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탄소산업이 발전하기를 고대해 왔기에 잔작부터 그랬던 라면 하는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다. 만지자탄이 생각날 정도인 것이다. 그래서 전북도더러 긴장하라고 주문할 수밖에 없는 오늘이다. 전북도는 우리의 탄소산업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달려왔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에 안심하고 있을 이가 도내에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도민들은 우리 전북이 탄소산업에 관한한 한국 최고의 선두주자 이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그 바탕이 희망사항에 그칠 것 같아서 걱정이다. 말 그대로 탄소산업은 꾸준한 성장이 관건이다. 백년 먹거리 사업으로 키워야 할 책임이 전북도 관계자들의 어깨에 있다. 지금은 탄소산업의 성장 확대가 시급한 때이다. 지난날 전북도와 전주시가 활발한 모습을 보여 주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많이 어렵다. 언제부턴가 국내 탄소산업의 판도가 이상해지고 있는 것이다. 경상북도가 후발주자로 뛰어올라 지금은 그쪽의 발전상이 괄목할 만하는 중론이다.

탄소산업의 확대가 요구되는 것은 그 때문만이 아니다. 전북도는 십년이 넘는 세월 내내 이렇저런 비전을 말하면서 일찌기 창출의 기대를 한껏 키워 놓았다. 우리 지역을 한국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것도 도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미래 비전을 말하는 것만으로 성취되지 않는다. 정부를 상대로도 합차게 뛰어오겠다는 주문이다.

발전 추진 행보 구체적이어야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표를 보이아왔다. 주목받지 못한 현안도 행겨아지않아서 다. 현안들 중에는 구체적인 작업이 없이 세월만 보낸 것들이 적지 않다. 지난날 역대 정부들에 건의 해보고 뒤로 물러나기 과연 몇 번이 있었는가. 그러나 이제 그대서는 안된다. 지금이야말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낼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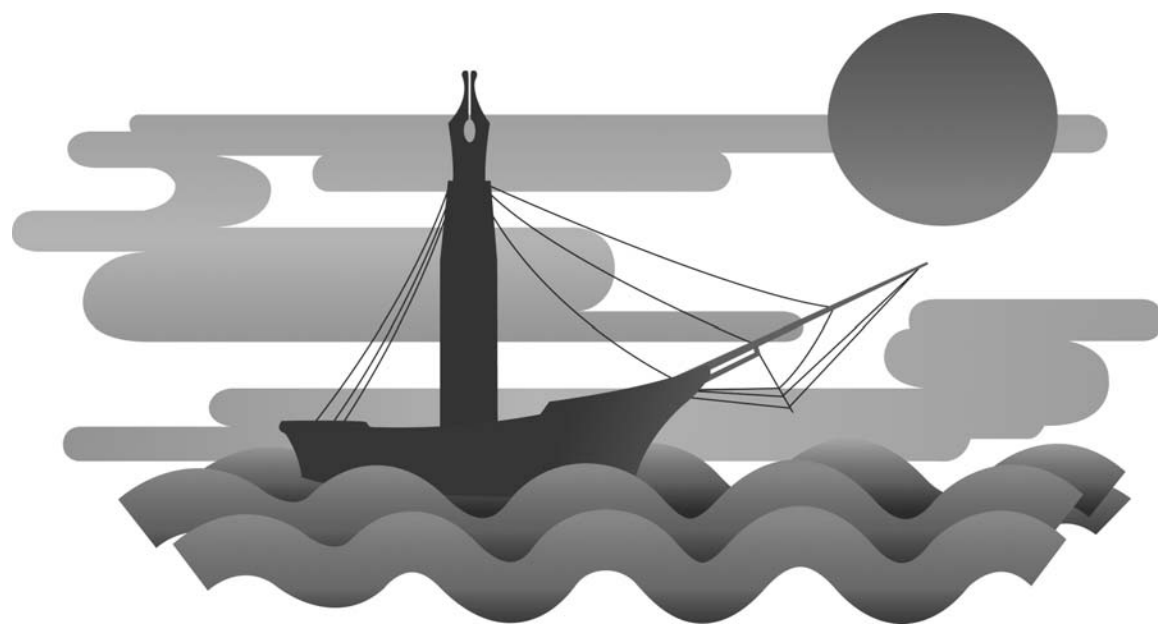
전북도는 발전 의지를 다져야 한다. 현안을 성취시키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나가야 한다. 전북도에 뚜렷한 행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슨 현안이고 변화를 보여주려면 행동이 있어야 한다. 지금 지역 발전 사업의 맨 앞장에 있는 새만금만 해도 그렇다. 내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지만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자면 답답하다. 국책사업도 것처럼 터럭거리고 있는데 다른 현안이야 오죽하겠느냐는 말이다. 본보는 여기 독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도민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일 뿐이다.

지역의 현안 추진은 도민을 위

해 있어야 한다. 지역의 현안 추진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있는데 사업 현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새만금 현장만 봐도 쪼잔한 일거라마다 외지업체가 도맡아서 했는데 이제 그대서는 곤란하다. 올 하반기에 새만금 개발공사가 들어서면 현상이 달라지리라는 기대이다. 도민의 이 간절한 바람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래서 거듭 말한다. 전북도는 사업 현장들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왔다.

무슨 현안이고 추진은 돈이 말하게 돼있다. 다른 지자체 인사들보다 설득의 강도가 세어한다는 이야기이다. 발전 현안을 행하고 있다 해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도민들은 전북도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발표할 때마다 기대가 컸다. 그런데 그 기대들이 무한 기다림의 연속이 되고 있다. 발전 추진 행보가 구체적이어야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